

한방의료기관 환자진료부에 의한 암환자 현황에 대한 연구

신현규 · 조경숙*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cancer patients based on charts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Hyeun-Kyoo Shin, Kyung-Sook Cho*

*Department of Academic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Scienc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Objectives : The former study of Oriental Medicine on cancer has been mostly focused on lab studies with herbal medicine. Among this atmosphe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to participate in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by investigating the type of treatments used for cancer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institutes.

Methods :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cancer 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Medicine institutes, a survey was done based on clinical charts of 258 patients of cancer..

Results : The order for the percentage of the original tumor organ of the patients who visited Oriental Medicine institutes was the same as that of Korea. Among the cancer patients, the number of patients who recognized the outbreak on the year of the first visit was the biggest, and the number gradually decreased while the years passed. For the type of treatment, herbal medicine was the most for 92.6%, acupuncture 52.6%, moxibustion 16.7%, cupping 14.7%. It can be seen that multiple treatment was preferred to single treatment. Among the periods for herbal medication, 10 days was the most for 34.1%, 29.8% for within 50 days and 10.5% for within 100 day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ho took treatment of western medicine at the same time and those who took treatment of Oriental medicine only was 47.4%

and 43.8% respectively. By surveying categories such as the symptoms, diagnosis of syndrome, principle of treatment from the chart by a free description, there was 841 names of symptoms, 207 diagnoses of syndromes and 206 principles of treatment. But no relation or connection between these could be found statistically. As there were even occasions which the doctor didn't record the cancer itself, precise investigation for the actual condition of cancer patients in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appeared to be very difficult.

Conclusions : It seems impossible to enroll cancer patients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ions to the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as far as the patients are recorded only under the paradigm of Oriental Medicine. However, if the Oriental Medicine doctors keep a consistency in classifying categories such as cause of death, syndrome diagnosis, principle of treatment and prescriptions, and limit the choices, for each category, a pilot study for cancer registry programme in R.O.K in Oriental Medicine could be carried out.

keyword : cancer registry programme, cancer,

I. 서 론

근래 한의학계의 암치료 연구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문헌고찰이나 임상연구보다는 실험적 방법에 의한 중앙연구가 우위를 차지하는¹⁾ 것으로 조사되어, 주 연구가 한약처방이 암세포 및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보고가 대부분이다. 암환자에 대한 임상진료 연구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암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방법, 암과 체질과의 관계를 설문 조사한 연구 1건²⁾이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암환자 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저자는 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통해 암환자 실태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한의학 치료가 암치료에 있어 어떻게 치료되고 평가되는가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이며, 국가의 암정책에 한 의학이 기여하는 바를 정책 수립할 수 있는 자

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으로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초진년월일, 원발장기명, 증상, 변증, 치료, 한약투여기간, 내원기간중 환자의 암치료 형태를 조사하였다. 1997년 10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11개 (대전대부속한방병원, 대전대부속한방병원천안병원, 동국대부속한방병원, 동국대부속인천한방병원, 동의대부속한방병원, 동의대부속한방병원서면병원,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원광대부속한방병원, 경산대부속한방병원, 경희대부속시내한방병원 등)와 1997년 11월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한의원에 암환자 설문조사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분석방법은 설문지를 SPSS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원발장기별 암환자의 증상 및 변증 치법에 대한 유의성과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II. 본 론

1.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한방의료기관 암환자 진료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157명(60.9%), 여자 101명(39.1%), 연령별로 살펴보면 1997년 말 기준으로 응답자 60대 79명(30.6%), 50대 64명(24.8%), 70대 51명(19.8%), 40대 24명(9.35), 30대 17명(6.6%), 20대 3명(1.2%)을 차지하였다. 거주지로는 서울특별시 62명(24.0%) 대구광역시 28명(10.9%) 경기도 35명(13.6%) 순으로 많고 다음으로 타거주 지역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진료부를 의료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한의원 138명으로 53.5%, 한방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120명으로 46.5%로 분포되었다.<Table 1>

2. 암질환 원장기별 분류

암질환 발생의 원장기별을 살펴보니, 위 59건(22.9%)으로 가장 높았고, 폐 37건(14.3%), 간 34건(13.2%) 뇌 23건(8.9%) 췌장 13건(5.0%) 대장 8건(3.1%), 유방 8건(3.1%), 자궁 8건(3.1%) 그 외 식도, 직장순 발생되었다. 이는 1998년도 암의 원장기별 발생 빈도 순위인 ①위(20.9%), ②간 및 간내담관(12.2%), ③기관지 및 폐(11.9%), ④대장(결장 및 직장 9.6%), ⑤유방(6.1%), ⑥자궁 경부(5.6%), ⑦갑상선(3.2%), ⑧조혈 및 관련조직계(3.0%), ⑨방광(2.5%), ⑩췌장(2.2%), 식도(2.0%), 난소(1.7%), 간외 담도(1.7%), 신장(1.4%), 뇌(1.3%), 전립선(1.3%), 담낭(1.2%), 피부(1.2%), 림프절(1.1%), 후두(1.1%)등³⁾과 비슷한 통계 순위를 나타냈으나 뇌에 발생한 암 환자의 빈도가 한방의료기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및 응답범주	응답자수	%
성별	남자	157	60.9
	여자	101	39.1
연령 (1997년 말 기준) 59.6±12.2	20~29세	3	1.2
	30~39세	17	6.6
	40~49세	24	9.3
	50~59세	64	24.8
	60~69세	79	30.6
	70세 이상	51	19.8
	무응답	20	7.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62	24.0
	부산광역시	23	8.9
	인천광역시	5	1.9
	대전광역시	8	3.1
	대구광역시	28	10.9
	광주광역시	8	8.9
	울산광역시	1	0.4
	경기도	35	13.6
	강원도	4	1.6
	충청남도	11	4.3
의료기관 유형	충청북도	6	2.3
	경상남도	18	7.0
	경상북도	16	6.2
	전라남도	5	1.9
	전라북도	14	5.4
	제주도	5	1.9
	결측치	9	3.5
	광역시	137	53.1
	시	65	25.2
	군	42	16.3
무응답	14	5.4	
한의원 한방병원 및 대학병원	한의원	138	53.5
	한방병원 및 대학병원	120	46.5
합	계	258	100.0

Table 2. 원발장기명

원발장기	Frequency	%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위	59	22.9	24.0	37.8
폐	37	14.3	15.0	52.8
간	34	13.2	13.8	66.6
뇌	23	8.9	9.3	75.9
췌장	13	5.0	5.3	81.2
대장	8	3.1	3.3	84.5
유방	8	3.1	3.3	87.8
자궁	8	3.1	3.3	91.1
식도	6	2.3	2.4	93.5
직장	6	2.3	2.4	95.9
후두	5	1.9	2.0	97.9
전립선	4	1.6	1.6	99.5
난소	4	1.6	1.6	100.0
임파선	4	1.6	1.6	
신장	3	1.2	1.2	
자궁경부	3	1.2	1.2	
설(혀)	3	1.2	1.2	
백혈병	3	1.2	1.2	
척수	2	0.8	0.8	
방광	2	0.8	0.8	
골수	2	0.8	0.8	
공장	1	0.4	0.4	
pineoloma	1	0.4	0.4	
식도	1	0.4	0.4	
악안면	1	0.4	0.4	
갑상선	1	0.4	0.4	
골	1	0.4	0.4	
기관지	1	0.4	0.4	
비인강	1	0.4	0.4	
혈액	1	0.4	0.4	
결측치	12	4.7		
Total	246	95.3	100.0	

3. 초진년도 및 발병기간

암발생 연도를 살펴보니 1997년 당해연도 106명 (41.1%), 1년 98건(38.0%), 2년 14건(5.4%), 3년 11건(4.3%), 4년 9건(3.5%), 5년 17건(6.6%)이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견된 암환자의 한방의료기관 이용도가 높았다. <Table 3>, <Table 3-1>

Table 3. 초진년도

(단위: 명, %)

응답범주	응답자수	%
1963년	1	0.4
1964년	1	0.4
1973년	1	0.4
1983년	1	0.4
1987년	1	0.4
1988년	1	0.4
1989년	1	0.4
1990년	3	1.2
1991년	1	0.4
1992년	6	2.3
1993년	9	3.5
1994년	11	4.3
1995년	14	5.4
1996년	98	38.0
1997년	106	41.1
결측치	3	1.2
합계	258	100.0

4. 암질환 치료방법

암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방법을 살펴보니, 한약 239명(92.6%)으로 가장 많고, 침 145명(56.2%) 뜸 43명(16.7%) 부항 38명(14.7%) 기타 87명(33.7%)으로 나타났고, 어떤

Table 3-1. 발병기간(초진년도부터)

(단위: 명, %)		
응답범주	응답자수	%
당해연도	106	41.1
1년	98	38.0
2년	14	5.4
3년	11	4.3
4년	9	3.5
5년이상	17	6.6
결측치	3	1.2
합계	258	100.0

한방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가 4명(1.6%)이 있었다. 이들 치료방법에 대한 병행치료를 살펴보니, 1가지 치료를 받은 환자 74명(28.7%), 2가지 치료를 받은 환자 86명(33.3%), 3가지 치료를 받은 환자 64명(24.8%), 5가지 치료를 받은 환자 2명(0.8%)이었다. <Table 4>

5. 한약투여기간

한방의료기관의 주 치료수단인 한약투여에 대한 기간을 살펴보니, 10일 투여 환자 88명(34.1%), 20~50일 투여 환자 77명(29.8%), 50~100일 투여환자 47명(18.2%) 100일 이상 투

Table 5. 한약투여기간

(단위: 명, %)		
응답범주	응답자수	%
10일	88	34.1
20-50일	77	29.8
50-100일	47	18.2
100일이상	27	10.5
환제투여	1	0.4
결측치	18	7.0
합계	258	100.0

Table 4. 암치료 방법

(단위: 명, %)			
	연수 및		% (응답자수)
	응답범주		
한약	유	239	92.6
	무	17	6.6
	무응답	2	0.8
침	유	145	56.2
	무	111	43.0
	무응답	2	0.8
뜸	유	43	16.7
	무	213	82.6
	무응답	2	0.8
부항	유	38	14.7
	무	218	84.5
	무응답	2	0.8
기타	유	87	33.7
	무	169	65.5
	무응답	2	0.8
치료안함	유	4	1.6
	무	252	97.7
	무응답	2	0.8
병행치료 (가지)	치료 안함	4	1.5
	1가지	74	28.7
	2가지	86	33.3
	3가지	64	24.8
	4가지	26	10.1
	5가지	2	0.8
결측치	2	0.8	
합계		258	100.0

여 환자 27명(10.5%)이었고, 그리고 환제 투여 환자가 1명 있었다. <Table 5>

6. 암치료 형태

한방 양방이 공존하는 한국의 의료형태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의 치료형태를

살펴보니, 한·양방의학의 병행치료 120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학적 치료 113명(43.8%), 양의학적 치료 6명(2.3%)이며 그 외 민간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Table 6>

Table 6. 암치료 형태

응답범주	응답자수	%
한의학적 치료	113	43.8
양의학적 치료	6	2.3
한·양방의학 병행치료	120	47.4
민간치료	3	1.2
한방 및 민간 병행치료	5	1.9
양방 및 민간 병행치료	1	0.4
한·양방치료 및 민간 병행치료	1	0.4
치료안함	1	0.4
모름	3	1.2
결측치	5	1.9
합계	258	100.0

7. 암 환자 한방 증상 변증 치법

암환자의 증상을 자유기재 서술형으로 설문조사하였더니 총 841개의 증상명(복수 응답 포함)을 기재하였다. 이중 암발생 원발장기별로 구별하지 않고, 증상 순위별로 10개 이상 기재된 증상명을 살펴보면, 소화불량(31개), 복통(28개), 두통(22개), 오심(20개), 체중감소(19개), 해수(19개), 현훈(19개), 변비(19개), 무기력(15개), 복수(13개), 언어삽(14개), 구토(13개), 호흡곤란(12개), 흉민(11개), 피로(10개) 순이었다.

암환자의 변증을 자유기재 서술형으로 설문조사하였더니 총 207개의 변증명(복수 응답 포함)을 기재하였다. 이중 암발생 원발장기별로 구별하지 않고, 변증명 순위별로 5개 이상 기재

된 변증명을 살펴보면 脾胃虛寒(9개), 陰虛(6개), 太陰人病(6개) 氣滯血瘀(5개)의 순이었다.

암환자의 치법을 자유기재 서술형으로 설문조사 하였더니 총 206개의 치법명(복수 응답 포함)을 기재하였다.

이중 암발생 원발장기별로 구별하지 않고, 치료명 순위별로 5개 이상 기재된 치료명을 살펴보면 補脾胃(7개) 補氣血(5개) 補中益氣(5개)의 순이었다.

8. 위암의 경우

본 조사결과 암질환 발생의 원장기별을 살펴보니, 위 59건(22.9%)으로 가장 높았고, 1998년도 국가암등록조사사업에서 암의 원발장기별 발생 빈도 순위인 1위인 위장암(20.9%)을 예로 들어 증상, 변증, 치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증상은 94개로 소화불량(2.6%), 복통(1.7%), 구토(1.4%), 식욕부진(1.4%), 오심(1.4%), 체중감소(1.4%), 감량, 견통, 구갈, 구미무, 구역, 구탁취, 급통, 다한, 대변불통, 도한, 두통, 맥현삭결, 무기력, 무력, 무력감, 미친, 변비, 복만, 복부팽만, 복수, 복창, 불대변, 불리청곡, 불면증, 불민, 불식, 불욕식, 비만, 비만 불식, 상복통, 상열감심, 설홍구열, 소변빈삭, 소변삭, 소화장애, 수족한열, 식불매, 식사불리, 식즉오심, 식후복통, 식후비만, 식후좌협, 신경쇠약, 심하비, 안면창백, 애기, 언어장애, 연변, 오심구토, 요배통, 요통, 유견배통, 우반신부, 우요통, 위산통, 위완, 위완동통, 위완부동, 위완부통, 위완통, 위장장애, 위통, 이로, 이체감, 이피로, 전신기력, 전신무력, 조잡, 졸통, 좌반신, 좌수족단, 좌향우구, 좌협통, 창격반위, 체수, 탄산, 토담연, 토심, 토혈, 피로, 하지통, 현훈, 혈압강하, 호흡곤란, 흉민, 흉부미민, 흉비, 흑변(나머지는 1% 미만)을 기재하였다.

변증명은 27개로 비위허한(1.1%), 간기, 간비 불화, 간울기체, 급극목토, 기체혈어, 기허, 비양허, 비위기허, 비위음치, 비위허, 소양인, 소음인태, 어혈, 원기부족, 위기허약, 위실신허, 위암말기, 위음허, 위허, 음허, 임파선전, 조잡, 태양인(나머지는 1% 미만)을 기재하였다.

치법은 34개로 건위온보, 보비산한, 보비위, 보비위정, 보양, 보위, 보음, 보음양, 보중익기, 보혈안신, 사간화위, 사폐보간, 산한지통, 소간이기, 소간해울, 소산, 소적백출, 수기, 수술후보, 순기, 승양익기, 식이요법, 온비산한, 온비위, 온비탕, 온위강음, 이기지통, 증생기, 청열보음, 칠보원기, 침구, 한약, 화위강역(모두 1% 미만)을 기재하였다.

한의사가 위암환자의 증상과 변증, 치법에 대한 진료부 기재 사항을 분류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이 1% 이내로 서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Ⅲ. 고찰 및 결론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중 암환자의 치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자진료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의학계에서 암 치료에 대한 연구가 한약물을 통한 실험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 형태를 조사하여 향후 국가 암등록조사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가에 대한 예비 조사이다.

총 258명의 암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도 한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장기별 발생 빈도 순위와 같았으며, 다만 뇌에 발생한 환자의 내원이 높게 나타났다. 발병이 당해연도에 시작된 환자의 내원 환자가 많았으며 매년 갈수록 환자 수가 줄었

다. 한방의료기관의 암치료는 한약 투여를 통한 치료가 92.6%로 가장 높았고, 침 투자 56.2%, 뜸 16.7% 부항 14.7%로 나타났고, 기타 치료법이 33.7%이었으나 기타 치료법 및 수단에 대한 조사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1가지 치료보다는 2가지 병행 치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약의 투여기간은 10일 투여가 34.1%로 가장 높고, 50일 이내가 29.8%, 100일 이내가 10.5%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간에 내원한 암환자는 양방의료와 같이 병행하는 환자와 47.4% 한의학 적 치료만을 하는 비율이 43.8%이었다.

암환자의 진료부에 기록된 증상, 변증, 치법에 대하여 자유기재 서술형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41개 증상명과 207개 변증명, 206개 치법명을 기재하였고, 이를 원발 장기명을 기준으로 증상과 변증 치법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나 서로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암환자 발생중 가장 높은 빈도인 위암을 예로 조사하였더니, 증상 94개, 변증명 27개, 치법 27개로 조사되었다. 이 속에서도 기재한 증상과 변증, 치법의 빈도가 낮아 서로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의사가 암환자의 질병병을 암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⁴⁾ 실제 한방의료기관의 암환자의 실태 조사는 어렵다.

한방의료기관의 암환자 진료부 조사를 통하여 한의과대학에서 통일된 질병명, 변증명, 치법명을 교육 실습하여, 임상 진료시에 동일한 병명과 변증, 치법을 진료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한 암환자의 관리 체계에서는 진료부상 질병명, 변증명, 치법명의 정의와 분류가 일정치 않아 국가 암등록 조사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한의학계가 암환자에 대한 질병사인과 변증 및 치법, 처방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분류하고

한의사의 선택 여지를 제한하여 관리한다면 사업에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공현식, 류봉하, 박동원, 류기원, 한국한의 학의 중앙연구에 대한 현황(1980년 이후의 잡지에 보고된 논문을 중심으로). 대한한 방중앙학회지 Vol.1, No1:55-81, 1995.
2. 성현제, 신현규의 5명, 암치료에 있어서 체 질과 항암효과에 관한 한의학적 연구. 7-51, 1997.
3. 보건복지부,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보 고서, 9, 2000.
4. 신현규, 조경숙, 최선미, 양방질병명에 대 한 한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동의생리병리 학회지, 제15권6호:867, 2001 : 자궁암 환자 가 한방의료기관에 내원시 한의사가 진료 부 기재를 응답자의 50.5%는 자궁암으로 기재하지만, 17.9%는 한의학 진단법인 四 診에 의한 한방질병명으로 기재한다고 응 답.